

報 道 資 料

(Press Release)

제 목

SFA, 1분기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15% 성장
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성장, 연간 실적 기대치 높아져

디스플레이/반도체 제조장비 및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을 아우르는 종합장비회사인 에스에프에이(이하 SFA, 대표이사 김영민)는 14일 올해 1분기 별도 및 연결 경영실적을 공시하였는데, 연초부터 들이닥친 COVID-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제활동 위축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연결 기준으로 전년동기(3,193억원) 대비 15% 성장한 3,676억원, 별도 기준으로 전년동기(1,686억원) 대비 20% 성장한 2,024억원에 달하는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.

SFA 관계자는 “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통해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월된 풍부한 수주잔고(7,358억원) 기반 하에서 COVID-19 확산으로 디스플레이사업의 중국 고객사向 수주 PJT에 대한 현지 작업 진행이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, 해외디스플레이사업이 전년동기 대비 40% 이상 증가하였으며, 이차전지사업의 비중이 20% 이상으로 성장하는 등에 힘입어 이 같은 양호한 실적을 도출할 수 있었다”며, “연결 기준의 경우에는 주요 종속회사인 SFA반도체도 COVID-19로 인한 언택트 시장 확대에 기인한 서버용 D램 패키징 호조로 1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(1,170억원) 대비 23% 성장한 1,435억원을 거두면서 연결 실적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”고 전했다.

다만, 이러한 올해 1분기 실적은 직전분기에 대비해서는 별도 32% 및 연결 12% 감소했는데, 이는 4분기에 매출액이 집중되는 통상적인 경향에 따른 것으로서, SFA는 “올해 연간으로는 별도 기준으로 7,358억원에 달하는 전년말 수주잔고 규모와 중국고객사向 Display제조장비 PJT의 현지 작업 재개 및 올해의 신규 수주 물량 등을 감안하면, 매출액이 전년 실적(8,608억원)을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, 생산능력 확장에 따

른 SFA반도체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세되는 연결 기준 매출액도 전년 실적(1조5,777억원)보다 현격하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”면서 올해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.

한편, 별도 기준의 1분기 영업이익은 324억원에 그 영업이익률은 16.0%로 집계되었는데, 전년동기(345억원, 20.5%) 및 직전분기(546억원, 18.4%) 대비 수익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SFA는 “이는 일부 대형 PJT의 원가절감 누적효과가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예외적으로 상승했던 전년동기 및 매출 외형이 3천억원에 육박했던 직전분기와 대비하다 보니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일 뿐”이라면서, “매출 규모 차이 및 수주사업 특성상 매출 믹스의 일부 변동에 기인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분기별 수익성 등락의 범주 내에서 대외 환경 악화에도 여전히 양호한 수익성을 실현하였으며, 지속적으로 이 같은 수준 이상의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설명했다. 연결 기준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(406억원, 12.7%) 대비 6% 증가한 430억원(11.7%)으로서, 직전분기(793억원, 15.8%)에 대비해서는 46% 감소한 수준이다.

1분기 실적에서도 드러났듯이 SFA는 코로나로 인한 일부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장비를 필두로 이차전지장비, 반도체장비 및 자동화물류 등의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에서의 지속적인 고객선 다변화 및 사업품목 확충 노력을 통해 전년보다 더 신장된 수준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.

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개발 노력을 통해 상당 수준의 완성도에 이른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Edge Computing, 빅데이터분석, 가상물리시스템(Cyber Physical System) 및 예지보전(PdM) 등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제반 기술을 각 제반 사업부문에 이식함으로써 전 사업부문에서 현격하게 제고될 기술적 경쟁우위를 통해 획기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. 실제로 SFA는 이차전지사업부문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외관 검사기 및 반도체사업부문에서 인공지능과 예지보전(PdM) 기술을 이식하여 효율을 극대

화한 신개념 웨이퍼반송시스템 등의 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으며, 향후 디스플레이 및 자동화물류 사업부문에서도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사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는 큰 물결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함은 물론, 기술을 선도하는 종합장비업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최고의 기술력으로 '고객의 진보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(Solutions For Advancement)'을 제공하는 글로벌 종합장비회사로 성장하고 있다.